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 구절에 대한 小考

¹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 · ²Korea Forum, CAC, UNC
丁彰炫^{1, 2 *}

Thoughts on the phrase “夫氣之在脈也” of *Miraculous Pivot(靈樞)·Nine needles and Twelve sources(九鍼十二原)*

Jeong Chang-hyun^{1, 2 *}

¹Dept. of Korean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Carolina Korea Forum, Carolina Asia Center,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Objectives : Among the translations of the verse “Sa-gi is on the upper side, Tak-gi is on the middle side, Cheong-gi is on the under side(邪氣在上, 濁氣在中, 清氣在下)” in the texts of *Miraculous Pivot(靈樞)·Nine needles and Twelve sources(九鍼十二原)*, the meanings of ‘Ham-maek(陷脈)’ and ‘Joong-maek(中脈)’ have contradictory versions.

Methods :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actual meaning of this verse through analysis of the phrase “夫氣之在脈也”, followed by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three-stratum puncture(三刺)” in the chapters *Miraculous Pivot·Handling needle(官鍼)*, *Miraculous Pivot·Jong-sa(終始)* and the meaning of “刺有三變” of *Miraculous Pivot·Longevity and character(壽夭剛柔)*, after which its application in later periods will be discussed.

Results : The words ‘Sa-gi’, ‘Tak-gi’ and ‘Cheong-gi’ in the phrase “夫氣之在脈也” of *Miraculous Pivot·Nine needles and Twelve sources* each correspond to the words ‘yang pathogens(陽邪)’, ‘yin pathogens(陰邪)’ and ‘essence derived from food(穀氣)’ of *Miraculous Pivot* 終始,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Upper-Middle-Lower of the phrase “夫氣之在脈也” in *Nine needles and Twelve sources* indicates the three levels of depth, in which ‘Sa-gi’, ‘Tak-gi’ and ‘Cheong-gi’ each dwell. ‘Ham-maek’ and ‘Joong-maek’ are categorizations according to the depth of needling.

Key Words : Cheong-gi(清氣), ham-maek(陷脈), Joong-maek(中脈), three-stratum puncture(三刺), The advance and retreat of reinforcing and reducing(進退補瀉)

I. 서론

《靈樞·九鍼十二原》에 “夫氣之在脈也，邪氣在上，濁氣在中，清氣在下。故鍼陷脈則邪氣出，鍼中脈則濁氣出，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역대 거의 모든 주석이나 해설서에 上, 中, 下를 全身의 上, 中, 下로 해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陷脈’, ‘中脈’을 頭部の 혈위와 陽明經의 足三里로 해석하였다. 이는 모두 《靈樞·小鍼解》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바로 뒤의 “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이란 문장을 보면, 분명 침을 놓는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을 따른다면 분명 앞뒤가 모순이 된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추측건대 《靈樞·小鍼解》의 해석이 엄연히 존재하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두 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논문 모두 필자의 견해와 같이 “夫氣之在脈也”구절이 침을 놓는 깊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衣正安은 ‘陷脈’을 ‘淺表之脈’으로 絡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中脈’은 ‘伏行分肉之間의經脈’이라고 하여, ‘陷脈’과 ‘中脈’을 명사로 보았다. 이와 달리 胥榮東 등은 ‘陷’과 ‘中’을 動詞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의 견해 역시 이와 같다. 아울러 衣正安은 ‘三刺’에 대한 언급이 없고, 胥榮東 등은 ‘三刺’와 관련성을 언급하였으나 자שה히 논술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구절을 면밀히 분석하고, 《靈樞·官鍼》과 《靈樞·終始》 중의 “三刺” 및 《靈樞·壽夭剛柔》

의 “刺有三變”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 구절의 본 뜻을 밝히고, 아울러 그것이 후세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역대 주가의 해석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邪氣在上，濁氣在中，清氣在下。故鍼陷脈則邪氣出，鍼中脈則濁氣出，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에 대한 《靈樞·小鍼解》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夫氣之在脈也，邪氣在上者，言邪氣之中人也高，故邪氣在上也。濁氣在中者，言水穀皆入於胃，其精氣上注於肺，濁溜於腸胃，言寒溫不適，飲食不節，而病生於腸胃，故名曰濁氣在中也。清氣在下者，言清濕地氣之中人也，必從足始，故曰清氣在下也。鍼陷脈則邪氣出者，取之上。鍼中脈則濁氣出者，取之陽明合也。鍼太深則邪氣反沈者，言淺浮之病，不欲深刺也，深則邪氣從之入，故曰反沈也。(《靈樞·小鍼解》)

‘上’을 신체의 상부, ‘中’을 腸胃, ‘下’를 足部로 보았다. 또 ‘濁氣’는 水穀, ‘清氣’는 清濕한 地氣라고 보았으며, ‘邪氣’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인체 상부로 침입한다고 한 것을 보면 風寒, 風熱 등의 사기를 가리키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 ‘鍼陷脈’할 때는 인체의 상부에서 취혈하며, ‘鍼中脈’할 때는 양명경의 合穴을 취한다고 하였고, ‘清氣在下’에 해당하는 침법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장개빈도 이 점을 의심하여 “但缺取清氣在下之義 或有所失.”(《類經·鍼刺類·鍼分三氣失宜爲害》)2)이라고 하였다. 이 점 역시 본 구절의 원 뜻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으로,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역대 주가들은 모두가 별다른 의심없이 《靈樞·小鍼解》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먼저 楊上善은 <九鍼十二原>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석이 없고, <小鍼解>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았다.

“高，在頭。風熱邪氣多中人頭也，故曰在

* Corresponding Author : Changhyun Jeo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0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접수일(2014년 10월20일), 수정일(2014년 11월17일),
게재확정일(2014년 11월17일).

1) 衣正安. 《內經》“陷脈”證. 四川中醫 1992년 제8기. pp.3-4.

胥榮東, 王旭. “陷脈”“中脈”釋疑. 中醫雜誌 2008년 제49권 제1기. pp.92-93.

2)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18.

上也。穀入於胃，化爲二氣，清而精者，上注於肺，以成呼吸，行諸經隧，其濁者，留於腸胃之間，因於飲食不調爲病，故曰在中也。清，寒氣也。寒濕之氣多從足上，故在下也。上，謂上脈，頭及皮膚也。中者，中脈，謂之陽明，是胃脈也。陽明之合者，胃足陽明合三里，至巨虛上廉與大腸合，至巨虛下廉與小腸合也。”

‘高’를 頭部라고 하였고, ‘清濕’을 ‘寒濕’으로 해석하였으며, 치료 부위로 陷脈에 침자할 때는 머리카락의 혈맥을 취하고, 中脈에 침자할 때는 足陽明胃經의 三里, 上巨虛, 下巨虛를 취한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九鍼十二原>에 대한 주석에서 “邪氣在上者，賊風邪氣也，濁氣在中者，水穀之氣也，清氣在下者，寒濕之氣也。”(《類經·鍼刺類·鍼分三氣失宜爲害》)³⁾라고 했고, <小鍼解>에 대한 주석에서 “傷於風者，上先受之，故凡八風寒邪之中人，其氣必高而在上。水穀入胃，其清者化氣，上歸於肺，是爲精氣，若寒溫失宜，飲食過度，不能運化，則必留滯腸胃之間而爲病，此濁氣在中也。傷於濕者，下先受之，故凡清濕地氣之中人，必在下而從足始。諸經孔穴，多在陷者之中，如刺禁論所謂刺缺盆中內陷之類是也。故凡欲去寒邪，須刺各經陷脈，則經氣行而邪氣出，乃所以取陽邪之在上者。陽明合穴，足三里也，刺之可以清腸胃，故能取濁氣之在中者。反沈，病益深也。”(《類經·鍼刺類·鍼分三氣失宜爲害》)⁴⁾라고 하였다.

이는 <小鍼解>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邪氣’를 ‘賊風邪氣’ 또는 ‘八風寒邪’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하였고, ‘清氣’도 ‘寒濕地氣’라고 해석했다. ‘陷脈’에 대해서는 각 經의 孔穴인데, 대개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中脈’은 <小鍼解>의 해석을 좇아 양명경의 合穴인 足三里라고 하였다.

馬蒔와 張志聰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다. 馬蒔는 風雨寒暑 등의 사기가 風府나 風門을 통해 침입한 것을 ‘邪氣在上’이라고하고, 飲食不節로 인해 濁氣가

腸胃에 머물러 있는 것을 ‘濁氣在中’이라 하고, 清濕之地氣, 즉 寒濕之地氣가 足部로 침입한 것을 ‘清氣在下’라고 보았다.⁵⁾ ‘上’이 인체의 상부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頭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張志聰은 “陷脈，額顛之脈，顯陷於骨中，故鍼陷脈則陽之表邪去矣.”⁶⁾라고 한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陷脈이 頭部의 뼈이 함몰된 곳, 즉 頭部의 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타 《靈樞講義》⁷⁾, 《靈樞經校釋》⁸⁾, 白話通解黃帝內經⁹⁾ 등도 모두 楊上善, 張介賓, 馬蒔, 張志聰 등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Ⅲ. 고 찰

1) 上中下는 淺中深이다.

해당 구절의 말미에 “鍼太深則邪氣反沈病益”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나치게 깊이 침을 찌르면 사기가 도리어 깊이 들어가 병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다. <小鍼解>의 해석을 따른다면, 이것은 앞의 내용과 문맥이 순조롭지 못하다. 邪氣, 濁氣, 清氣가 인체의 상중하에 침입한 것에 대해 각기 頭部, 胃經의 穴에 침을 놓는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침을 너무 깊이 찌르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은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앞부분에 침자의 깊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上, 中, 下는 침을 놓는 깊이를 맥을 기준으로 淺, 中, 深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아야 한

5) 邪氣之中人也高，凡風寒暑雨之邪，由風府風門而入，故曰邪氣在上也。水穀皆入於胃，其精微之氣，上注於肺，而寒溫不適，飲食不節，則濁氣留滯於腸胃而病生，故曰濁氣在中也。清濕之地氣中人也，必從足始，故曰清氣在下也。治之者必鍼於上，以攻其陷脈，則上之邪氣可出。鍼其中脈，以取足陽明胃經之合，即三里穴，則中之濁氣可出。然鍼之勿宜太深。正以淺浮之病，不欲深刺，若刺之深，則邪氣從之反沉而病益也。(陳夢雷 등, 圖書集成 醫部全錄3. 黃帝內經靈樞. 大星文化社. 1986. p.7.)

6) 圖書集成 醫部全錄3. 黃帝內經靈樞. 서울. 大星文化社. p.8.

7) 澠江抽齋. 靈樞講義 上.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p.46-47, 93-94.

8)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9-23.

9)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西安.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pp.2288-2289.

3)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18.

4) 張介賓. 類經下.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518-519.

다.

이렇게 보면 해당 구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夫氣之在脈也”라는 말과도 부합한다. 여기서 ‘氣’는 邪氣, 濁氣, 清氣를 포괄하는 말이니, 맥을 기준으로 淺部에는 邪氣가, 中間에는 濁氣가, 深部에는 清氣가 분포한다고 봐야한다. 또 이 구절에 연이어 “故曰皮肉筋脈, 各有所處, 病各有所宜, 各不同形, 各以任其所宜.”이라 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가 皮肉筋脈에 따라 淺深이 있으므로 각기 적절한 침과 침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와도 의미가 순통한다.

아울러 <九鍼十二原>에서는 이 문구가 九鍼에 대한 설명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다. 九鍼의 大小, 長短 등의 형태에 따라 그 용도가 다른데, 특히 그 병소의 깊이가 침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이 역시 上中下는 淺中深의 의미로 봐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靈樞>에는 자침의 깊이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이 여러 편에 보인다.

먼저 <壽夭剛柔>에 “刺有三變”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黃帝曰余聞刺有三變, 何謂三變. 伯高答曰有刺營者, 有刺衛者, 有刺寒痺之留經者. 黃帝曰刺三變者奈何. 伯高答曰刺營者出血, 刺衛者出氣, 刺寒痺者內熱. 黃帝曰營衛寒痺之爲病奈何. 伯高答曰營之生病也, 寒熱少氣, 血上下行. 衛之生病也, 氣痛時來時去, 怫憤貴響, 風寒容於腸胃之中. 寒痺之爲病也, 留而不去, 時痛而皮不仁.(《靈樞·壽夭剛柔》)

여기서는 邪氣가 있는 부위와 침을 놓는 깊이를 衛分, 營分, 肌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衛分의 병을 치료할 때는 혈맥을 상하지 않도록 얇게 찌러 사기만 제거하고, 營分의 병을 치료할 때는 혈맥을 찌러 출혈시키며, 좀더 깊이 筋骨肌肉에 생긴 寒痺를 치료할 때는 깊이 찌러야 한다는 것이다.

<官鍼>과 <終始>에는 ‘三刺’를 설명하고 있는데,

‘刺有三變’과 비슷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구절에 훨씬 더 부합함을 알 수 있다.

所謂三刺, 則穀氣出者. 先淺刺絕皮, 以出陽邪, 再刺則陰邪出者, 少益深, 絕皮致肌肉, 未入分肉間也, 已入分肉之間, 則穀氣出. 故刺法曰始刺淺之, 以逐邪氣, 而來血氣, 後刺深之, 以致陰氣之邪, 最後刺極深之, 以下穀氣, 此之謂也.(《靈樞·官鍼》)

凡刺之屬, 三刺至穀氣, 邪僻妄合, 陰陽易居, 逆順相反, 沈浮異處, 四時不得, 稽留淫泆, 須鍼而去. 故一刺則陽邪出, 再刺則陰邪出, 三刺則穀氣至, 穀氣至而止.(《靈樞·終始》)

三刺는 刺針의 깊이를 세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얇게 찌르면 체표의 陽邪를 제거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찌르면 陰邪를 제거할 수 있으며, 좀 더 깊이 분육간에 이르도록 찌르면 곡기가 이룬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穀氣”를 正氣, 神氣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穀氣”는 인체의 正氣를 대표하는 말로서 精氣 또는 元氣과 같은 의미이다.

이것을 ‘刺有三變’과 비교해보면, ‘刺衛出氣’는 ‘一刺出陽邪’와 상응하고, ‘刺營出血’은 ‘再刺陰邪出’과 상응하며, ‘刺寒痺內熱’은 ‘三刺穀氣至’와 상응한다. 세 번째로 깊이 肌肉 사이에 침을 찌르면 정기가 이르러 痺氣를 제거하는 것이다. <終始>에서 穀氣가 이르면 허했던 정기가 충실해지고, 성했던 사기가 쇠해진다고¹⁰⁾ 설명한 바, 穀氣가 이르는 것과 痺氣가 제거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것을 다시 <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구절과 비교해 보면, ‘邪氣’, ‘濁氣’, ‘清氣’가 각각 ‘陽邪’, ‘陰邪’, ‘穀氣’와 상응함을 알 수 있다. 穀氣는 正氣, 精氣 또는 元氣를 의미하므로 <九鍼十二原>의 ‘清氣’ 역시 正氣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앞에서 ‘清氣在下’에 해당하는 침법이 제시되지

10) “所謂穀氣至者, 已補而實, 已瀉而虛, 故以知穀氣至也.”(《靈樞·終始》)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는 <終始>에서 “三刺則穀氣至”라 한 것과 부합한다. <九鍼十二原>의 원뜻은 淸氣를 邪氣나 濁氣와는 다른 인체의 정기로 보았기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할 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小鍼解>의 해석처럼 ‘淸氣’를 寒濕의 地氣로 보았다면 당연히 ‘鍼…脈則淸氣出’이란 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官鍼>에서 “無令精出，獨出其邪氣耳”라 하였듯이, 鍼刺할 때는 정기를 누설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따라서 <終始>에서도 ‘陽邪出’, ‘陰邪出’에서 ‘出’자를 쓴 것과 달리 “穀氣至”라 하여 ‘至’자를 쓰고 있다. <官鍼>에서도 비록 ‘穀氣出’이라 하였지만, 마지막에 ‘下穀氣’라고 한 것을 보면 陽邪와 陰邪가 ‘出’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小鍼解>에서 ‘淸氣在下’에 해당하는 침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九鍼十二原>과는 좀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추측컨대, <小鍼解>의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면, ‘鍼足脈則淸氣出’이란 말이 있어야 하는데, 언급이 없다. 그것은 바로 뒤에서 “鍼太深則邪氣反沈”이라 한 것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다.

2) 陷脈, 中脈은 刺針의 깊이다

上中下가 淺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陷脈’이나 ‘中脈’의 의미도 달라져야 한다. 기존의 주석은 모두 陷脈과 中脈을 신체 上部 또는 頭部의 腧穴과 足陽明經의 足三里穴로 보았다. 그러나 <小鍼解>의 해석을 배제하고, <九鍼十二原>의 문장만을 살펴본다면, 陷脈을 頭部의 腧穴이라 하고, 또 中脈을 足三里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內經》전체에서 ‘中脈’의 용례를 살펴보면, “刺舌下，中脈太過，血出不止爲瘡”，“刺跗上，中大脈，血出不止，死。” “刺面，中溜脈，不幸爲盲。”(《素問·刺禁論》), “豹文刺者，左右前後鍼之，中脈爲故”(《靈樞·官鍼》) 등으로 모두가 혈맥을 찌르는 것이다. 이 때 ‘中’은 동사로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른다는 뜻이다. “刺中心，一日死”，“刺中肝，五日死”(《素問·刺禁論》)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鍼中脈’은 ‘침으로 맥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른다’라고 해석

해야 한다.

그렇다면 ‘陷脈’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靈樞·九鍼十二原》에 “鍤鍼者，鋒如黍粟之銳，主按脈勿陷，以致其氣。”라 했고, 《靈樞·九鍼論》에 “三者，人也，人之所以成生者，血脈也。故爲之治鍼，必大其身而員其末，令可以按脈勿陷，以致其氣，令邪氣獨出。”, “三曰鍤鍼，取法於黍粟之銳，長三寸半，主按脈取氣，令邪出。”이라 했는데, 鍤鍼은 끝이 둥글어 맥을 누르기만 하고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않아 체표의 사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按脈勿陷’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陷’은 ‘陷入’의 뜻으로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鍼陷脈’은 침으로 피부를 뚫고 혈맥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官鍼>편의 ‘淺刺絕皮’해서 陽邪를 제거하는 취지에 맞춰본다면 ‘陷’은 비록 피부를 뚫고 들어가더라도 얇게 들어가 피부를 淺刺하거나 浮刺하는 것을 의미한다. <官鍼>에서 “脈淺者，勿刺，按絕其脈，乃刺之，無令精出，獨出其邪氣耳。”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邪氣가 얇은 부위에 있을 때는 성급하게 침을 놓지 말고 일단 맥을 눌러 통하지 않게 한 다음 침을 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 體表에 있는 사기만 제거되고 精氣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九鍼十二原>에서는 본 구절의 직전에 구침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침을 선택할 때 병소의 깊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九鍼 중에서도 특히 鑱鍼은 <九鍼十二原>과 <官鍼>에서 “主瀉陽氣”，“病在皮膚無常處”라 하였는데, 주로 淺刺放血하여 體表의 邪氣를 제거하는데 쓰인다. 이는 <관침>의 “淺刺絕皮”해서 陽邪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상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陷脈’은 “按脈取氣”，즉 혈맥을 눌러 자극을 주거나, 또 體表에 얇게 鍼刺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 ‘中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얇게 찌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陷脈과 中脈은 각각 淺刺와 深刺로 침을 놓는 깊이를 구분한 것이다.

IV. 후세에 미친 영향

앞의 고찰을 통해 <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句節, <靈樞·官鍼>과 <靈樞·終始> 중의 “三刺” 및 <靈樞·壽夭剛柔>의 “刺有三變”이 모두 침을 놓은 깊이를 세 층으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후세 刺鍼手法 중의 ‘三進一退’, ‘一進三退’의 이론적 기반의 되었다. 지금은 이를 進退補瀉라고도 한다.

鍼을 天, 즉 얇은 부위까지 刺入하여 득기반응을 찾은 후 天人地 세 단계의 깊이로 자침하는데 각 부위에서 한 번씩 정지했다가 힘주어 刺入하는 식을 3회 진행하여 地, 즉 깊은 곳까지 이른 후 침을 단번에 천천히 拔鍼하는 것이 補이며, 침을 단번에 천천히 地 부위까지 刺入해서 得氣感을 찾은 후 地·人·天의 세 단계로 침을 뽑는데 각 부위에서 한 번씩 정지했다가 힘주어 뽑는 식으로 3회 진행하고 拔鍼하는 것은 瀉이니, 즉 ‘三進一退’는 補이고, ‘一進三退’는 瀉이다.¹¹⁾

<鍼灸大成·經絡迎隨設爲問答>에서도 補法을 설명하면서 “刺入皮三分”-“刺入肉三分”-“插至筋骨之間三分”이라 하여 깊이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手法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각각 天才, 人才, 地才라고 했다.¹²⁾ 또 <鍼灸大成·南豐李氏補瀉>에서 “提者自地部提至人部天部, 插者自天部插至人部地部.”¹³⁾라고 하여, 각각의 부위를 天部, 人部, 地部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진퇴보사법은 후세에 개발된 여러 특수 침법들에 널리 활용되는데, 燒山火, 透天涼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鍼灸大成·三衢楊氏補瀉>에 보면 “燒山火, 能除寒, 三進一退, 熱湧湧, 鼻吸氣一口, 呵五口.” “透天涼, 能除熱, 三退一進, 冷冰冰, 口吸氣一口, 鼻出五口.”¹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鍼灸大成>에 보이는 蒼龜探穴¹⁵⁾, 赤鳳迎源¹⁶⁾ 등의 침법에

11) 鄭魁山 저. 고흥균, 인창식 역. 임상침구수기법. 서울. 집문당. 2004. p.124.
12)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70.
13)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52.
14)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61.
15)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78.
“蒼龜探穴, 如入土之象, 一退三進, 鑿剔四方.” “赤鳳迎源, 展

이를 응용하고 있다.

V. 結 論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구절은 <靈樞·官鍼>과 <靈樞·終始> 중의 “三刺” 및 <靈樞·壽夭剛柔>의 “刺有三變”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둘째,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 구절의 ‘邪氣’, ‘濁氣’, ‘清氣’는 각각 <靈樞·終始>의 ‘陽邪’, ‘陰邪’, ‘穀氣’와 상응한다. 穀氣는 正氣, 精氣 또는 元氣를 의미하므로 <九鍼十二原>의 ‘清氣’역시 正氣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 <靈樞·九鍼十二原>의 “夫氣之在脈也” 구절의 上中下는 淺中深을 의미하여, 각각 ‘邪氣’, ‘濁氣’, ‘清氣’가 소재하는 부위이다.

넷째, 陷脈과 中脈은 각각 淺刺와 深刺로 침을 놓는 깊이를 구분한 것이다.

다섯째, 이는 후세에 ‘三進一退’, ‘一進三退’의 進退補瀉로 발전하였고, 燒山火·透天涼 등의 여러 침법에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References

1. Zhang Jie-bin. Lei Jing(2), Daesungmunhuasa. 1988. p.518, 519.
張介賓. 類經下. 大星文化社. 1988. p.518, 519.
2. Zhen Menglei. Tushujicheng Yibuquanlu(3). H w a n g j e n a e g y o n g - y o n g c h u . Daesungmunhuasa. 1986. p.7, 8.
圖書集成 醫部全錄3. 黃帝內經靈樞. 대성문화사. 1986. p.7, 8.
3. Sibue Jusai. Hwangjenaegyong-yongchugangyi(1). Academy Press, 2003. pp.46-47, 93-94.

翹之儀, 入針至地, 提針至天……”(《鍼灸大成·金針賦》)
16)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55.
“赤鳳迎源, 以兩指扶起針, 插入地部, 復提至天部, 候針自搖, 復進地部……”(《鍼灸大成·南豐李氏補瀉》)

- 澗江抽齋. 靈樞講義 上. 學苑出版社. 2003.
pp.46-47, 93-94.
4. Hebei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Lingshujingjiaoshi.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pp.19-23.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19-23.
5. Zhang Dengben. Baihuatongjie Hwangdin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2000.
pp.2288-2289.
張登本 주편. 白話通解黃帝內經. 世界圖書出版公
司. 2000. pp. 2288-2289.
6. Zheng Kuishan, HG Ko, CS Y. Clinical
manipulation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Jipmoondang. 2004. p.124.
鄭魁山 저. 고흥균, 인창식 역. 임상침구수기법.
집문당. 2004. p.124.
7. Ynag Jizhou. Zhenjiudacheng. Daesungmunhuasa.
1984. p.78, 152, 155, 161, 170.
楊繼洲. 鍼灸大成. 大星文化社. 1984. p.78, 152,
155, 161, 170.
8. Yi Zhengan. Explanation about 《Naegyong》
“Xianmai”. Sichuan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2(08). pp.3-4.
衣正安. 《內經》“陷脈”詮. 四川中醫 1992년 제8
기. pp.3-4.
9. Xu yingdong, Wang Xu. Explanation about
“xianmai”“zhongma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8. 49(1). pp.92-93.
胥榮東, 王旭. “陷脈”“中脈”釋疑. 中醫雜誌 2008
년 제49권 제1기. pp.92-93.

